

강풍에 상가 간판 날아가고 아파트 곳곳 정전

광주·전남 태풍 '무이파' 피해 잇따라

항공 12편 취소·여객선 89척 운항 통제

강풍을 몰고온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시속 28km의 빠른 속도로 북진하면서 7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되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물폭탄'이 쏟아진 중부지역에 비해 울들어 풍수에 피해가 거의 없었던 광주·전남지역은 '무이파'가 동반한 강풍으로 7일 오후부터 가로수가 뽑히거나 상가 간판이 떨어져 주변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도 이날 오전부터 강풍으로 인해 가로 시설물이 넘어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자 외출을 자제했으며

특히 아파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하고, 배란다 창문까지 파손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오후 광주 금남로와 상무지구 등 도심지역에는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입간판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상가 간판들이 비바람에 달칵거리는 등 행인들에게 공포감마저 심어 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보도에는 강풍에 살이 부러진 우산들이 버려져 있었고, 가로수 가지와 나뭇잎마저 나뭇잎이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태풍으로 광주공항에서 오전 7시 김포공항으로 출발한 대한항공

등 3편을 제외하고, 광주에서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12편의 왕복 항공편 운항이 모두 취소됐다. 또 목포항을 출발하는 21개 항로 42척을 비롯해 여수항과 완도항 등 전남지역 항구를 기점으로 하는 모두 56개 항로 89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역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 간판과 아파트 배란다 창틀 추락, 아파트 창문 유리 파손, 가로수 쓰러짐 등의 피해가 광주에서 50여건, 전남에서 40여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중심사 버스정류장 회차지 인근 상가 간판이 떨어지면서 이모(여·61)씨가 머리와 팔에 상처를 입었고, 동구 지산동의 2층 건물 옥상에 있던 임시 간판이 바람에 무너졌다.

이후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병원 간판이 강풍에 떨어

져 나갔으며, 오후 3시께는 동구 금남로 한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또 2시40분께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18층 배란다 창문이 거센 바람에 파손됐다.

이와 함께 오후 3시 35분께 목포시 목원동 한 숙박업소 4층 건물 외벽 구조물 벽돌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더욱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점차 바람이 강해져 비와 과일 등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일 오후 2시를 기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입산 통제를 실시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8일 오전까지는 강풍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대비해 안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7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한 조선관계업체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시설물이 강풍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돌풍에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법률사무소 간판이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8374) 김중두



택시 빼앗아 달아난 연쇄 강도범 붙잡아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7일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조모(47)씨를 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새벽 2시40분께 영광군 영광읍 공설운동장 인근 앞길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모(53)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7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산동 길가에서 택시 운전사 이모(여·50)씨를 위협해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술 마셨죠?... 좋게 끝냅시다”

음주 후 핸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악재'를 노리는 신종 공갈이 등장했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와 용봉지구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범행은 대부분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전석에 앉은 뒤,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순간 이뤄진다.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차량이 앞을 가로막은 후, 협박 낚시꾼이 다가와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되지요. 경찰에 신고하기는 뭐하고, 쉽게 해

취객 음주운전 순간 신고 협박 돈 요구

광주 유흥업소 주변 신종 공갈 잇따라

결합시다”라며 돈을 요구한다는 것.

피해자들은 술이 거의 깨거나 단속 수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마셨더라도 ‘신고한다’는 말에 당황한다. 대개 요구 금액이 5만원 또는 10만원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비해 경미해 순순히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공포를 느끼기

주고 그 자리를 모면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뜯기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신고 하려면 하라”고 대차게 나갔다가도, 차창에 부착된 자신(운전자)의 휴대폰 번호와 차량 넘버를 외운 경찰에게 손을 들고 만다.

피해자 이모(29)씨는 “공갈범은 유흥가에서 장시간 대상을 물색한 듯, 어느 술집에서 나왔는지와 휴대폰 번호 파악 등 돈을 뜯기 위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주서 승합차 굴러 총남대생 5명 숨져

5명은 중경상

7일 오후 1시10분께 전북 무주군 적상면 구천터널 부근 도로에서 강원 직(27)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강씨 등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총남대 무학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6일 차량을 빌려 무주로 엠티(MT)를 왔다가 번을 당했다.

대전 쪽으로 달리던 차량은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2m 가량 벗어나 수풀지대로 전복됐다.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고 유리창이 모두 박

살았으며, 의자도 대부분 부서졌는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한 학생은 “승합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길을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쾅거리며 순식간에 차량이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급커브 내리막길 이어서 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무주군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에 나섰고, 경찰은 생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se@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